

# 솔롱고스와 대 초원의 꿈

여름 평균 기온이 17°C라는 몽골을 찾아가 보았다.  
 대초원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어린 시절 시골 고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색깔의 푸른 빛과 흰 구름이었다. 또 그곳 초원에서 제일 놀라웠던 것은  
 우리들 어렸을 때의 시골 인심같은 그들의 친절과 손님에 대한  
 친절감의 표시였다. 그러나 그 넓은 초원을 두고도  
 수도 울란바토르의 시가지 한가운데에 시커멓게 연기를 뿜고있는  
 화력발전소를 세워 놓은 것을 보고 서글퍼졌다.  
 그들의 친자연적 삶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릴것 같아서...

**지** 난 8월 며칠간 몽골의 바양고비  
 초원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  
 었다. 중국 심양의 문학세미나에 참  
 석했다가 베이징에서 울란바토르행  
 비행기편이 있는 걸 알고는 징기스칸  
 의 웅대한 꿈과 말 발자국의 흔적이  
 있는 몽골의 대초원이 갑자기 보고  
 싶어져서 일정을 바꾸었던 것이다.

솔롱고스 —

무지개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의 한  
 국을 지칭한다는 이 단어 역시 유혹  
 이었다.

사실 유럽 쪽을 돌아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와 닿는 백인들의 인종적 우  
 월심리에 속이 불편하다가 적어도 형  
 가리에 가면 몽골의 여섯족장 동상을  
 부다페스트 광장에서 발견하면서 좀  
 기분이 달라지는 경험을 여행객들은  
 하게 된다.

동쪽에서 말을 타고 온 황인종들이  
 세운 나라라는 믿음의 그들 피부색은  
 세월이 지나 백인화 되어 있지만 언

어만큼은 우리와 같은 우랄 알타이어  
 의 어순을 가지고 있어서 괜히 기분  
 이 좋아지는 것이다.

몇년 전 스페인에 갔다가 콜럼버스  
 아메리카 발견 2백주년 기념행사를  
 요란스럽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좀  
 친해진 어느 철학교수에게 술주정을  
 한 적이 있었다. 백인들이 아메리카  
 에 가기 전에 거기에는 이미 엉덩이  
 에 몽골반점을 가진 몽골리안들이 살  
 고 있지 않았느냐고, 너희들 논리대  
 로라면 징기스칸의 유럽정벌이 동양  
 인의 시각으로 보면 유럽 발견의 원  
 인이 되는 것이라고....

부양우카(Buynt-Ukaa)공항에 내  
 려서 올려다 본 하늘의 색깔에 나는  
 우선 숨을 죽였다. 아주 어린 시절  
 시골 고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색깔  
 의 푸른 빛과 흰 구름. 여름의 평균  
 기온이 17°C. 8월 초 베이징의 눅눅  
 하게 습기찬 무더위 속에 있다가 가  
 을 날씨같은 기온에 얽은 셔터를 꺼  
 내 입으면서 드디어 몽골의 초원에서  
 있다는 현실감이 왔다.

## 초원의 겐서 며칠 숙식

우리는 울란바토르에서 하루를 머  
 물고, 곧장 옛 수도가 있었다는 하로  
 호름을 향하던 중 바양고비 초원의  
 몽고식 겐에서 며칠을 묵었다.

참 질리게도 계속되는 초원과 지평  
 선, 거기 수백마리, 수천마리의 양떼  
 와 말들, 띄엄 띄엄 서 있는 그들의  
 천막집, 들. 그 사이로 천천히 말 등  
 에 올라 짐승들을 몰고 있는 어른들  
 과 열살도 안되어 보이는 소년들.

거기서 만난 암브르군은 열다섯짜  
 리 소년이었다.

다섯살 때부터 말타기를 배웠다는



俞金浩  
 (소설가/목포대 국문학과 교수)



▲ 몽고인 가족들과 함께 한 필자(왼쪽에서 두번째)

소년에게서 나는 초원을 뒤덮고 있는 개양귀비를 닮은 작은 흰꽃의 이름이 '지츠크'라고 불린다는 것도, 보라 빛의 작은 꽃은 '옴스', 강가의 버들 강아지를 닮은 키 작은 나무는 '모르갓스', 갈대는 '대리스'라는 것들을 배웠다. 거기에 말을 '조랑말' 비슷하게 발음하는 것도, 돌무더기를 쌓아 푸른 천의 깃대를 꽂아 놓고, 거기 돌맹이며, 돈이며, 심지어는 집에서 잡아 먹은 말대가리에, 짚고 다니던 목발까지 올려 놓고, 그들의 소원을 비는 우리들 성황당 역할의 장소가 '어와' 이고, 그 푸른 천의 깃대가 '하득'이라는 것도 배웠다.

### 시골 인심같은 친밀감이...

그 초원에서 제일 놀라웠던 것은 우리들 어렸을 때의 시골 인심같은 그들의 친절과 손님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였다.

어느 집이건 '아이릭'이라고 불리는 마유주(馬乳酒)가 항아리에 가득 담겨 있었는데 말젖이 어느 정

도 발효된 상태의 약간 맛이 지난 막걸리 비슷한 이 음료를 어느 천막에 서고 두잔 석잔 끝없이 원하는 바람에 나는 계속 취해 있었는데 그들은 하루에 평균 20리터씩을 마신다고 했다.

겔을 꾸미는데 1시간, 뜯는데 30분이라는 기동성.

거기에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승마 대회에는 세살짜리부터 35Km를 달린다고 했다. 거기에 소 한마리를 건포로 말리면 배낭 두개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들의 갈무리 습성이 과거 지구의 절반을 휘저었던 역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왔다.

남녀 구별없이 말 등에 오르면 초원을 날듯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 속도 앞에 과거의 한 시기, 정착 농경민족들이 감히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도 짐승이 움직여 가는데로 그 뒤를 따라가 거기 잠시 머물고, 다시 떠나는 유랑의 습관

을 지켜가는 동안 다른 세계는 말보다 더 빠른 탈 것들이 생기고, 활과 창을 능가하는 무기들이 만들어져 간 것이다.

그들은 정지해 있었고, 다른 세계는 앞으로 나가 버린 것이다.

그들은 유목민족답게 그들의 위대했던 선조 징기스칸의 무덤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오랜 수도였던 으르헨 강가의 하라호름도 낡은 불교 사원인 이르텐주사원이 남아 있을 뿐 나머지는 그냥 광활한 초원 뿐이었다..

그 초원 위에 1백80마리의 표범가족을 덮은 그들 황제의 겔을 중심으로 수만개의 겔이 질서정연하게 수도로의 위용을 자랑했을 상상 속의 도시를 그려 보며 그 철저한 친자연적 삶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다.

### 화력발전소 보고 서글픔이...

그들이 겔 안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호모스(말똥)와 알라가스(소똥)로 초원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호르후'이라고 불리우는 양고기 찜에, 한국에서 가져간 소주 몇잔씩을 나누면서 바라 보았던 하늘의 별들이 거의 주먹만큼씩 느껴졌던 것을 오래 못잊을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그 넓은 초원을 두고도 수도 울란바토르의 시가지 한가운데 시커멓게 연기를 내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세워 놓은 것이 서글퍼졌다.

그것이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느껴진다는 배운 사람들 속에서 징기스칸의 무덤조차 갖지 않은 그들 친자연적 삶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릴 것 같아서였다. ㉔